

# “고용을 2배 늘렸고, 임금은 3배 올랐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들이 자동 포장기계 옆에서 견과류를 분배하고, 생산한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 제품은 온라인(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판매되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5,500만 원과 1억2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년 전인 2016년 3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거주하는 윤성식(가명·37) 씨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미영, 이하 작업장)을 찾았다. 심하지 않은 장애(뇌전증 4급)를 지닌 윤 씨가 할 일이 없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노심초사했는데, 광주시청을 방문했다가 2015년 12월 문을 열고 이듬해 1월부터 직원을 뽑기 시작한 작업장을 소개받았다.

작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윤 씨를 면접을 거쳐 채용했다. 아몬드와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를 생산·판매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었다. 인지능력이 낮은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생에게는 단순포장 같은 간단한 일을 맡긴 반면 윤 씨에게는 견과류를 볶거나, 함량에 맞춰 나누는 일이 주어졌다. 출퇴근도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작업장의 승합차나 부모의 차량으로 하는 반면 윤 씨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나중에 아산재단이 자동 포장기계를 지원한 뒤에는 작동법을 습득해 기계를 조작했고, 바자회에서 제품 판매도 맡았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윤 씨는 3명의 작업반장 중 한 명이 됐고, 월급도 처음보다 배 이상이 올라 작업장에서 최고임금을 받고 있다. 의젓하게 사회인으로 자리 잡은 윤 씨를 볼 때마

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큰 걱정을 덜었다”고 흡족해했다.

17명(근로장애인 5, 훈련생 12)으로 시작한 작업장은 처음엔 완전 수동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견과류를 팬에 넣고 볶은 뒤 손으로 실링(압축밀봉)해 제품을 만든 것이다. 자연히 작업능률이 떨어져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량이 적으니 임금 수준도 낮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은 2016년 아산재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심사 끝에 견과류 볶음기계와 납품용 트럭을 지원받았다. 2016년 사업수행 우수기관에 선정된 작업장은 2017년에 다시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동 포장기계를 도입했다. 최창무(34) 작업재활팀장은 “2년 동안 아산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납품하는 등 매출이 늘면서 17명에서 30명으로 고용을 늘렸고, 평균임금도 3배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무형복지회에서 운영하며, 올해 매출목표는 1억5천만 원이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500여 사회복지단체에 5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